

A. 예수의 행적: healing=> 그들을 고치다 (ἐθεράπευσεν αὐτούς)

- “저희 병을 고치다”? => 무슨 병? 고치다 << 모든 병과 약함 (πᾶσαν νόσον καὶ πᾶσαν μαλακίαν 4:23; 9:35; 10:1; cf. 12:15). => 일반적, 개괄적 표현
- 대부분 병든 사람을 고치다. 병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초점이 사람에게 있다.
-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예수는 자신의 말/생각을 행동으로 옮김. 새로운 지경—여기서는 유대 지경—에 갈 때마다 하던 일을 계속. 그렇다면, 이 후의 행동, 비유, 가르침은 예수의 정체성과 행동윤리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고침 (cf. Challenge, Care, Create)

B. 바리새인과의 분쟁--continued

1. 아내를 내어버림 (<<신 24:1. cf. 롬 7:1-6)

- 이혼증서의 의미: (약한 자를) 보호할 목적=> 신의를 저버린 것이 아니다 (당시 사회법)
- 바리새파의 논쟁: 아내를 내칠 수 있는 경우 (힐렐과 삼마이 논쟁)
  - 힐렐(Hillel): 아무 때나 (m. Gittin 9:10). cf. Sir 7:26; 25:26; 칠거지악(七去之惡)
  - 삼마이(Shammai): 부정(不貞), 음행의 경우만. cf. 세례요한의 비난(마 14:4)
- “저희를 고치다”의 관점에서=> 당시 사람들의 관습을 “모든 병과 약함” 속에 포함.

2. 어린아이와 천국 (하느님 나라): 마 19:13-15

- 여자와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는 사회계급에서 가장 상처받기 쉬움(vulnerable).
- 제국주의 질서에서 피해자들인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느님 나라는 로마제국과는 다른 이데올로기/체제임을 암시

3.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cf. 막 10:17//눅 18:18-23 “선한 선생” => 왜 그렇게 부르느냐?)

- 어떤 사람 (16 절; )=> 그 청년 (20 절)=> 이름/계급을 밝히지 않은 이유=> applicability, 누구나
- 십계명 +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 19:18) => 토라와 선지자의 강령. 토라와 선지자=> 성서. 곧 성서 가르침의 핵심. Cf. 오병이어 (오병=>토라; 이어=>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경천애인[敬天愛人])
- 질문: 영생=> 다시 읽기: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너희는 하느님 앞에서 온전하라 (신 18:13). “온전함”(ἁμαρτία, τέλειος)은 흠없음(blameless)을 뜻함. 곧, 잘못된 질문. 성서에서 “영생”은 신의 영역.

4. 질문: 왜 근심하고 갔으며, 재물이 있는 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 “병고침”의 신학적 틀로 읽기. 근심??? 재물(지배이데올로기)를 통해 “영생” (행복, 구원)을 얻으려 함=>정체성 상실; 혹은 그 정체성이 “하느님 나라”(예수의 신학/복음)에 있지 않고, 로마제국(지배이데올로기)과 함께 함.
- 재물과 구원(영생)—혹은 재물과 하느님—의 문제라기 보다 (물질과 하느님은 비교 대상이 못됨), 재물 이면의 지배 이데올로기(Mammon, 로마제국)와 하느님 나라의 문제.
- 재물에서 자유함=> 무소유가 아니라, 재물—지배이데올로기—에 매이지 않음. 바울 (세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고전 5:10); 요한 (너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17:15)=>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고, 그 안에서 어떻게 identity 를 지키며 살아야 할까?
- 여기서 세상(κόσμος)은 하느님을 대적하는 체제(system)를 의미 (윌터 윈크,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나는 거룩한 소명을 배신해버린 체도와 구조의 실제적 영성을 “악마”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지배체제”(Domination System)라고 표현할 때는, 권세들의 전체 네트워크(연결망)가 우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지배체제가 이 세계를 그 안에 둘러싸고 있는 정신(영)을 나는 “사탄”(Satan)이라고 부른다. (p. 35)

생각해 보기

1. 내가 기독교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혹은 기대했던 것은?)
2. 성서의 “재물이 있는 자”/“부자”를 다른 말, 혹은 오늘의 말로 바꾸면?